

# 주간 KDB리포트

Weekly KDB Report

## 이슈브리프

코로나19 의료폐기물 처리현황과 과제

## 북한포커스

북한 샘플사업 현황 및 전망

## 국제금융시장

## 금융시장

금리 · 환율 · 주가



# 주간 KDB리포트 Contents

## 이슈브리프

코로나19 의료폐기물 처리현황과 과제 ..... 1

## 북한포커스

북한 샘플사업 현황 및 전망 ..... 5

국제금융시장 ..... 8

## 금융시장

금리 · 환율 · 주가 ..... 12



# 코로나19 의료폐기물 처리현황과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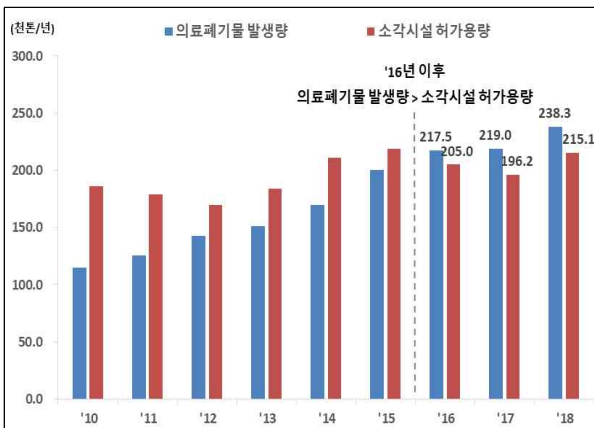
KDB미래전략연구소 산업기술리서치센터  
이 선 화 (sunhwa@kdb.co.kr)

- ◆ 코로나19로 의료폐기물 발생이 급증했지만, '19년 관련법 개정을 통해 감염 우려가 없는 일회용 기저귀가 의료폐기물에서 제외되면서 폐기물 적체 없이 처리 중
- ◆ 향후 발생 가능한 전염병에 대비하기 위해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확대는 필수적인 바, 신·증설에 대한 민원 해결 등의 사회적 공감대 확대 노력 및 처리체계 개편도 필요

## □ '신의 한 수'가 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2019.10.29.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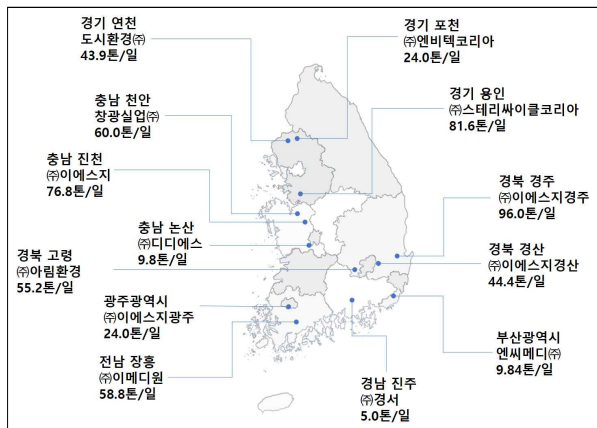
- 환경부는 '19.10월 증가하는 의료폐기물\* 대비 부족한 처리시설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감염 우려가 없는 일회용 기저귀를 의료폐기물에서 제외
  - \* 의료기관 및 시험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 감염 등 위해 우려가 있는 폐기물로서 위해도에 따라 격리·위해·일반의료폐기물로 분류
- 의료폐기물 발생량은 '10년 115.1천톤에서 '18년 238.3천톤으로 연평균 9.5% 이상씩 8년새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전염성이 낮은 일회용 기저귀 등의 일반 의료폐기물이 전체 의료폐기물의 73%를('18년 기준) 차지
- 반면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은 전국에 단 13개소만이 운영 중이며, '18년 기준 연간 허가(처리)용량은 215.1천톤\*으로 수년째 담보상태
  - \* '18년 발생량(238.3천톤) 대비 처리용량(215.1천톤) 작지만, 의료폐기물 소각장은 변경허가 없이 허가용량의 130%(279.7천톤)까지 소각이 가능하며, 발생량 중 일부는 자가 처리시설(분당 서울대학교병원, 카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에서 처리

의료폐기물 발생량 및 허가용량 추이



자료 : 자원순환정보시스템(2019.12)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현황



자료 : 자원순환정보시스템(2019.12)

- 부족한 처리시설로 인해 의료폐기물 방치\*, 처리단가 상승\*\* 등의 문제 발생되고, 처리시설의 지역별 편중으로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의료폐기물이 발생 지역에서 수백km 이동되어 처리되는 등 안전처리에 차질 초래
  - \* 경북 고령 일대에 의료폐기물 불법 적체 적발('19.4)되어, 환경부는 방치 혐의로 지역 의료폐기물 소각업체(아림환경)에 대해 10개월 영업정지를 처분('19.10)했으며, '19.12월 대구지방법원에 의해 영업정지 처분 유예되며 현재 영업 중
  - \*\* 의료폐기물 처리비용(원/톤) : ('17) 768,000 → ('18) 838,000 → ('19) 1,004,000
- 이에 '19.10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감염 우려가 없는 일회용 기저귀를 의료폐기물 분류에서 제외함으로써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의 부하를 줄이고 보다 안정적인 의료폐기물 처리기반을 마련

□ 코로나19 의료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정점을 찍은 '20.2월(2월 29일 909명) 의료폐기물 발생량은 전년 동월 대비 1,898톤(11.1%) 감소한 15,135톤으로 조사
  - 확진자 수 증가로 격리의료폐기물량은 전년 동월 대비 290톤 증가하였으나, 일반의료폐기물에서 일회용 기저귀 제외되며 일반의료폐기물량 2,377톤 감소
    - \* 코로나19 관련 격리의료폐기물 발생량 : '20.1월 0.14톤, 20.2월 52.01톤
  - 국내 월별 확진자 수 가장 많았던 '20.3월에도 격리의료폐기물이 전년 동월 대비 1,300톤 넘게 늘었지만, 일반의료폐기물이 약 3,500톤 감소하면서 전체 의료폐기물은 전년 동월 대비 12.7% 감소(TBC, 4.28일자 보도 내용)

'19.2월 대비 '20.2월 의료폐기물 발생량

(단위 : 톤)

구분	'19.2월 (2.1~2.28)		'20.2월 (2.1~2.28)		증감량 (증가율(%))
	발생량	허가용량 대비량(%)	발생량	허가용량 대비량(%)	
격리의료폐기물	357	2.2	647	3.9	290 (81.1)
위해의료폐기물 (조직, 치료제, 혈액 등)	3,378	20.5	3,586	21.7	208 (6.2)
일반의료폐기물 (붕대, 거즈 등)	13,279	80.5	10,902	66.1	△2,377 (△17.9)
<b>합계</b>	<b>17,014</b>	<b>103.2</b>	<b>15,135</b>	<b>91.7</b>	<b>△1,898</b> <b>(△11.1)</b>

자료 : 환경부 보도자료(2020.3.2)

- 코로나 19 관련 의료폐기물은 현행규정(폐기물관리법)보다 강화된 관리기준을 적용한 특별대책을 마련하여 적체 없이 안정적으로 소각처리 중
  - 전국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처리용량(허가용량, 589.4톤/일) 기준 90% 이상의 가동률로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
  - 치료(격리) 확진자 1인당 10kg/일\* 의료폐기물 배출을 가정할 때, 국내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은 최대 약 26,200명\*\*의 치료(격리) 확진자(5.7일 기준 격리 중인 확진자 1,135명) 배출 폐기물까지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
  - \* 2.26일 기준 1인당 약 5kg/일 배출
  - \*\* '20.2월 기준 전년 동월 대비 일반의료폐기물 감소량 약 85톤/일(2월 증감량÷28일)로, **8,500명**(85,000kg÷10kg)의 치료(격리) 중인 확진자의 배출 폐기물 수용 가능하며, 소각시설 130% 가동 가정시 **17,700명**((589.4톤×0.3)÷10kg) 치료(격리) 중인 확진자 배출 폐기물 추가 수용 가능

**코로나 19 격리의료폐기물 관리방안**

구분	배출자 보관	운반	처리
격리 의료폐기물 현행규정	- 7일까지 보관 - 합성수지 전용용기 - 전용 보관창고 (조직물류 냉장보관) - 보관창고 소독	- 냉장운반 - 임시보관(2일)	- 처리기한 2일 - 전용보관 창고 (조직물류 냉장보관)
격리 의료폐기물 관리강화	- <b>당일 위탁처리</b> (1~2일 이내 보관) - <b>냉장보관 원칙</b> - 전용용기 <b>투입 전·후 소독</b>	- <b>임시보관 금지, 당일 운반</b> - 사용시 마다 <b>차량약물 소독</b>	- <b>당일 소각처리</b>

자료 : 환경부 보도자료(2020.3.2)

**□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국내 의료폐기물 처리 과제**

- 향후 발생 가능한 코로나19 등과 같은 전염병에 대비하여 의료폐기물 처리 시설 확대 불가피하며, 이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 확대 필요
  - 13개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중 10개소가 10년 이상 되었으며, 20년 이상 된 노후시설 또한 4개소에 달해 허가용량 초과 가동 등에 한계
  - 부산·광주를 제외한 특·광역시 및 강원, 전북, 제주 등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부재 지역 다수 존재
  - 현재 다수의 지역에서 주민 민원 등에 의해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신·증설 및 운영에 난항을 겪고 있어 중재 및 조정제도 마련 필요
  - \*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관련 민원 발생지역 : (신설) 충북 괴산, 강원 강릉, 전남 순천, (증설) 충남 논산, 경남 진주

- 지역별 소각시설 설치가 어려울 경우, 의료기관 자가 멸균으로 의료폐기물의 전염성을 낮춰 이동시키는 방안 등도 고려 가능
  - \* 현재 정부에서는 의료기관 멸균시설 활성화를 위한 '교육환경보호법(학교 근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금지)' 개정 추진, 일정 규모 이상 대학병원 내 멸균시설 설치 의무화 등을 검토 중
- 코로나19 의료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 해결 등을 포함하여 의료폐기물 처리체계 보완 요구되며, 신규 일자리 창출과도 연계할 필요
  - 의료폐기물을 수거할 때 무게를 부풀려 처리비용을 과다 청구한 사례 발생
    - \* 코로나19 치료와 확산 방지에 매진하고 있는 의료기관 인력이 의료폐기물 무게 점검까지 일일이 확인할 여력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
  - 코로나19 극복 후 적법한 의료폐기물 처리를 위한 제도개편 필요하며, 의료기관 폐기물 담당자 고용이나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용 로봇 개발 등 일자리 창출과도 연계하는 것이 바람직

# 북한 샘물사업 현황 및 전망

KDB미래전략연구소 한반도신경제센터  
최재현 (jaeheun@kdb.co.kr)

- ◆ 북한의 샘물(생수) 수요는 상수도 시설 낙후로 인한 식수환경 악화 및 중산층 이상 생수 선호 등으로 꾸준히 증가
- ◆ 평양시를 비롯 북한 전역에 샘물 공장을 신설하거나, 생산능력을 확대 중이며, 배달 서비스 등 유통 및 소비체제도 구축 중
- ◆ 샘물은 대북제재 비해당 품목으로 향후 중요한 외화 수입원이 될 전망

## □ 평양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생수 수요가 꾸준히 증가

- '70년대 건설된 상수도 시설 낙후 및 기후 악화 등으로 식수환경이 열악
  - 깨끗한 물 부족과 위생시설이 개선되지 않아 약 600만명(전체인구의 25%)이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 '18.6.29자, 스웨덴 적십자사 북한 담당관 아사 샌드버그 방문보고서
  - '19년 황해남도에서는 태풍 통과 후 수인성 질환인 세균성 이질, 장티푸스 등으로 사망자 속출, 평안남도 지역에서도 A형 간염 환자 증가
  - \* RFA('19.10.7자), "먹는 물로 본 남과 북"
- 장마당 경제를 통한 주민 생활 수준 향상으로 생수 수요 증가
  - 중산층 이상 건강에 관심이 높아지고, 생수 소비 여부가 일종의 '부의 상징'으로 인식되면서 생수 선호도 증가
  - \* 연합뉴스('18.7.8자), "北서 생수병 들고 다니는 건 '부의 상징'...늘어나는 생수 공장"
- 생수 시장이 활성화 되면서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대도시 중심으로 생수를 구입하는 주민이 증가
  - 500ml 생수 한 병 가격은 '1,500북한원'으로, 쌀 가격(1kg 약 '5,000북한원') 고려시 상당히 높은 수준 (한국 쌀 1kg 4,000원, 생수 500ml 한 병 300원)

## □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평양시를 비롯, 북한 전역에 샘물공장을 신설하거나 생산능력을 확대하는 사업 진행중

- 평양시에 '16.9월 '룡악산샘물공장' 증축공사를 실시하였고, '18.7월 '능라도 샘물공장' 생산공정 무인화 및 통합생산체계 구축

- '18년중 강원도 원산시 관풍지구에 총 부지면적 1만㎡에 달하는 현대적 샘물 공장을 신설하는 등 지역 단위로 샘물공장 건설 확대 중

**샘물공장 및 유통 현장**



자료 : 통일뉴스('16. 9.30자), "北 김정은, 룡악산 샘물 공장 찾아 복리증진 강조"



자료 : RFA('18.7.13자), "남성들에게 밀친 안 드는 샘물 장사 인기"

**주요 샘물공장 현황 및 주요 특징**

공장명	위치	주요 특징
룡악산 샘물	평양시 만경대구역	'07년 김정일 지시로 건설, 평양시민에게 생수 공급
대성산 샘물	평양시 대성구역	'19.5월, 대규모 생수 공장 신설
금강산 샘물	강원도 고성군	금강산 생태 보존 특별지역에서 생산되는 암반수
신덕 샘물	평남도 용강군	김일성 일가가 대대로 마시는 샘물
강서약수	남포시 강서구역	천연기념물 제56호로 지정

자료 :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

**□ 원활한 생수공급을 위한 유통 및 소비체계 구축 중**

- 큰 초기투자금 없이 돈벌이가 가능한 샘물 사업에 많은 자영업자가 참여
  - 산속에서 샘물을 길어와 개별 용기에 포장하지 않고 직접 유통되는 '바라 샘물'은 1리터에 700북한원 수준으로, 비교적 저렴하고 청결하여 인기

- 샘물 장사꾼에게 전화로 주문, 자동차를 임대해 집 앞까지 배달해주는 서비스 및 후불제를 통해 단골 고객 증가

\* RFA('18.7.13자), "북 남성들에 밀친 안 드는 샘물장사 인기"

## □ 대북제재 비해당 품목으로 향후 중요한 외화수입 사업이 될 전망

- 샘플사업은 대북제재와 관계없이 북한이 외화를 획득할 수 있는 사업
  - '19년초 중국시장 수출을 목적으로 나선시 선봉지구에 '라선청학샘물' 공장을 신설, 생산량 확대 중
    - \* 채널A뉴스('19.1.26자), "北", 제재로 수출길 막히자...'생수'로 외화벌이 총력
  - '18.5월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당시 외신기자들에게 북한산 생수를 공급하는 등 대외 홍보에도 적극적
- 과거 한국도 남북교역 차원에서 북한산 생수를 반입한 사례 있음
  - '90년대 중반부터 한국에 일부 반입, '00.3월부터 남북 합작기업이 생산한 '금강산생수'가 대량 반입돼 판매되었으나, '10년 5.24조치 이후 중단
  - '17.11월 종교단체 요청으로 '금강산생수' 500ml 4만6천병 반입 승인

# 국제금융시장 4월 동향

KDB미래전략연구소 미래전략개발부  
 김혜진 (ghjkim@kdb.co.kr)  
 정대형 (wellbaby@kdb.co.kr)

- ◆ (환율) 달러화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M자형 흐름을 시현하였으며, 원/달러 환율은 공포심리가 다소 진정된 가운데 1,200원을 상회하는 수준 유지
- ◆ (금리, 주가) 美 국채 수익률이 일정한 구간에서 보험세를 보인 반면, 주요국 증시는 일제히 반등세를 시현하여 전월 대폭락을 부분적으로 회복

□ (환율) 달러화 가치는 경기침체 우려와 경제활동 재개 기대가 교차하며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M자형 흐름을 시현하였으며, 원/달러 환율은 주요국 정책대응 등으로 공포심리가 다소 진정된 가운데 배당금 역송금 등으로 1,200원선 상회

- 달러 인덱스\*는 경제지표 악화에 따른 달러화 수요 강화 등으로 상승하였으며, 월말 봉쇄완화 및 경제활동 재개 기대의 부상으로 하락\*\*
  - \* 메이저 6개 통화(유로화, 엔화, 파운드화, 캐나다 달러, 스위스 프랑, 스웨덴 크로네) 대비 달러화 가치
  - \*\* 달러 인덱스 추이 : (4.6일) 100.792 → (4.15일) 99.548 → (4.23일) 100.496 → (4.30일) 99.013
  - 실업률(4.4%, 0.9%p ↑), 소매판매(△8.7%), 산업생산(△5.4%) 등 경제지표가 전반적으로 악화되었으며, 이에 따른 경기침체 우려가 달러화 수요로 연결
  - 월말 치료제 및 경제활동 재개에 대한 기대 등으로 안전자산 선호가 약화되어 달러 인덱스가 하락, 전월말과 비슷한 수준인 99.013pt로 마감
  - 29일 발표된 1분기 GDP는 4.8% 감소(전기대비 연율)하였으나, 연준이 경제 지원을 위해 모든 범위의 정책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히자 안전선호 완화
- 엔화는 월초 달러화 강세, 일본 내 코로나19 확산 우려 등으로 약세를 보였으나, 이후 경기침체 우려 등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로 월초 수준 회복
  - \* 엔/달러 환율 추이 : (3.31일) 107.55 → (4.6일) 109.22 → (4.14일) 107.22 → (4.30일) 107.18
- 유로화는 대규모 봉쇄조치에 따른 경제전망 악화, 재정정책을 둘러싼 EU 회원국간 갈등 등으로 약세를 보였으며, 월말에 약세폭 축소
  - \* 달러/유로 환율 추이 : (3.31일) 1.1035 → (4.10일) 1.0936 → (4.20일) 1.0862 → (4.30일) 1.0955

주요 선진국 통화 환율 추이

	'18년말	'19년말	'20.3월말	'20.4월말	전월대비
달러 인덱스	96.140	96.479	98.952	99.013	+0.06%
엔/달러	109.61	108.66	107.55	107.18	△0.34%
달러/유로	1.1456	1.1219	1.1035	1.0955	△0.72%

주 : 메이저 6개 통화(유로화, 엔화, 파운드화, 캐나다 달러, 스위스 프랑, 스웨덴 크로네) 대비 달러화 가치  
 자료 : 연합인포맥스

- 원/달러 환율은 주요국 경기부양책 등의 하락압력과 외국인 주식매도\*, 배당금 역송금, 김정은 위원장 건강 이상설 등 상승압력의 혼재로 1,220~1,240원대에서 등락 이후 월말에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기대로 하락

\* 4월중 외국인 주식투자 순매도액은 4.3조원('20년 순매도액은 약 20조원)

원화 환율 추이

	'18년말	'19년말	'20.3월말	'20.4월말	전월대비
원/달러	1,115.7	1,156.4	1,217.4	1,218.2	+0.07%
원/엔	1,017.9	1,064.2	1,131.6	1,136.7	+0.45%

자료 : 연합인포맥스

□ (금리) 팬데믹으로 인한 안전자산 선호와 경기회복 낙관론에 따른 채권시장 자금의 증시 이동이 혼재하여 美 국채 10년물 금리는 대체로 보합세 시현

- 1분기 동안 강력한 안전자산 선호(장기금리 하락요인) 추세로 임계수준으로 내려온 美 국채 등 장기채권 금리가 4월 들어서는 0.5~1.0%권에서 등락을 반복
- 코로나19로 인한 금리 하락추세가 유동성(달러화) 수요, 경기 바닥론, 주식시장 회복세(채권시장 자금이탈) 등에 의해 완화된 결과로 분석됨

□ (주가) 3월 대폭락을 보인 선진국 증시는 4월 들어 일제히 반등세로 전환하여 코로나19 확산 이후의 역사적인 하락폭을 부분적으로 회복

- 20~21일 국제유가 폭락으로 다우지수가 1천 포인트 이상 하락하기도 하였으나, 국제유가 급반등에 따라 단기간 내 상승세를 회복하는 등 미국·유럽·일본 등 선진국 증시는 4월 동안 5~11% 반등
- 미국의 실업대란 등 실물부문 충격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정책대응 및 하반기 경기 회복 기대가 더 강하게 작용한 결과로 보임

주요국 국채 금리 및 주가 추이

		'18년말	'19년말	'20.3월말	'20.4월말	전월대비
금리 (%)	미국채 10y	2.6842	1.9175	0.6695	0.6393	△3.02bp
	독일채 10y	0.2420	-0.1850	-0.4710	-0.5860	△11.50bp
	일본채 10y	0.0030	-0.0110	0.0220	-0.0300	△5.20bp
주가 (pt)	다우존스	23,327.46	28,538.44	21,917.16	24,345.72	+11.08%
	유로 Stoxx 50	3,001.42	3,745.15	2,786.90	2,927.93	+5.06%
	Nikkei	20,014.77	23,656.62	18,917.01	20,193.69	+6.75%

자료 : Bloomberg

# 국제금융시장 5월 전망

KDB미래전략연구소 미래전략개발부

김혜진 (ghkim@kdb.co.kr)

정대형 (wellbaby@kdb.co.kr)

- ◆ **(환율)** 달러화 강세가 5월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원/달러 환율은 팬데믹의 영향권 하에서 1,200원을 상회하는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
- ◆ **(금리, 주가)** 장기금리는 하락요인과 상승요인의 혼재로 혼조세가 예상되며, 증시에서는 부진한 실물경제 지표들이 경기 낙관론에 의한 주가 상승세를 억제할 것으로 전망

□ **(환율)** 달러화는 경기침체 우려, 미-중 갈등 등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의 영향으로 강세가 유지될 전망이며, 원/달러 환율은 수출 감소, 미-중 갈등 가능성 등 원화 약세요인으로 1,200원 상회 전망

## ○ 달러화 : 강세 지속

- 경제지표 부진\* 및 이에 따른 경기침체 우려\*\*, 미-중 갈등 격화 가능성, 신흥국 불안 등으로 달러화 강세 압력이 우세할 전망
  - \* 5.8일 발표된 4월 미국 실업률은 전월 대비 10%p 이상 급등(2월 3.5% → 3월 4.4% → 4월 14.7%)
  - \*\* 4.14일 IMF는 세계 경제성장 전망을 기존전망 대비 6.3%p 하향조정한 △3.0%로 발표
- 한편, 경제활동 재개 기대와 재확산 우려의 공존으로 인한 변동성 지속 예상

## ○ 엔화 : 보합세

- 달러화 강세, 긴급사태 연장\*에 따른 경제전망 악화 등 약세요인과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로 인한 안전자산 선호 등 강세요인 혼재
  - \* 5.4일 일본정부는 긴급사태 시한을 5.6일에서 5.31일로 25일 연장

## ○ 유로화 : 추가 약세 가능

- 실물경제 충격이 본격적으로 반영된 지표가 발표되는 가운데 공동정책추진에 대한 회원국간 불협화음\*, 미국 대비 약한 정책강도 등으로 약세 예상
  - \* 5.5일 독일 헌법재판소는 ECB의 양적완화 프로그램 중 공공채권 매입 프로그램(PSPP)에 대해 일부 위험 소지가 있으며 ECB에게 3개월안에 정당성을 입증하라고 요구, 이는 '18.12월 PSPP의 정당성을 인정한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과 배치되어 유로존 회원국간 통합에 균열 예상
- 유로존 1분기 GDP는 전분기 대비 3.8% 감소, 3월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11.2% 급감하였으며, 5.6일 EU집행위원회는 '20년 유로존 성장률을 통계작성 이후 가장 저조한 △7.7%로 예상

○ 원/달러 환율 : 1,200원대 유지

- 글로벌 수요 부진에 따른 수출 감소\* 등 팬데믹 영향 지속으로 1,200원 상회 전망
- 미-중 갈등 재점화 가능성, 신흥국 불안 등도 환율 상승요인
- 다만, 외국인 역송금 일단락에 따른 달러화 수급 개선, 양호한 방역 상황 등이 상승 제한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3~4월 외국인은 주식은 순매도(16.6조원)한 반면, 채권은 순매수(16.7조원) 유지

□ (금리, 주가) 장기채권 시장에서 변동성이 확대되고, 증시에서는 부진한 실물지표가 낙관적 심리를 제어할 것으로 예상

○ 금리 : 장기채권 시장의 혼조세

- 장기금리 하락요인인 안전자산 선호와 상승요인인 유동성 수요 및 증시회복에 따른 채권수요 감소의 혼재로 등락 반복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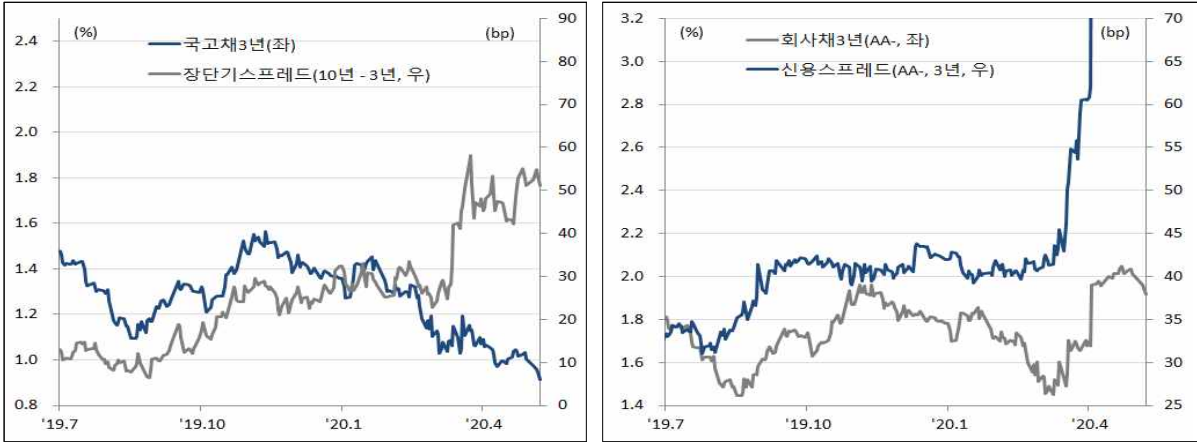
○ 주가 : 부진한 실물경제 지표들이 증시 상승세를 제한할 전망

- 美 상무부 발표(4.29) 1분기 美 경제성장률이  $\Delta 4.8\%$ (연율)를 기록하는 등 실물 부문 충격의 여파가 경기 낙관론에 따른 증시 상승세를 제한할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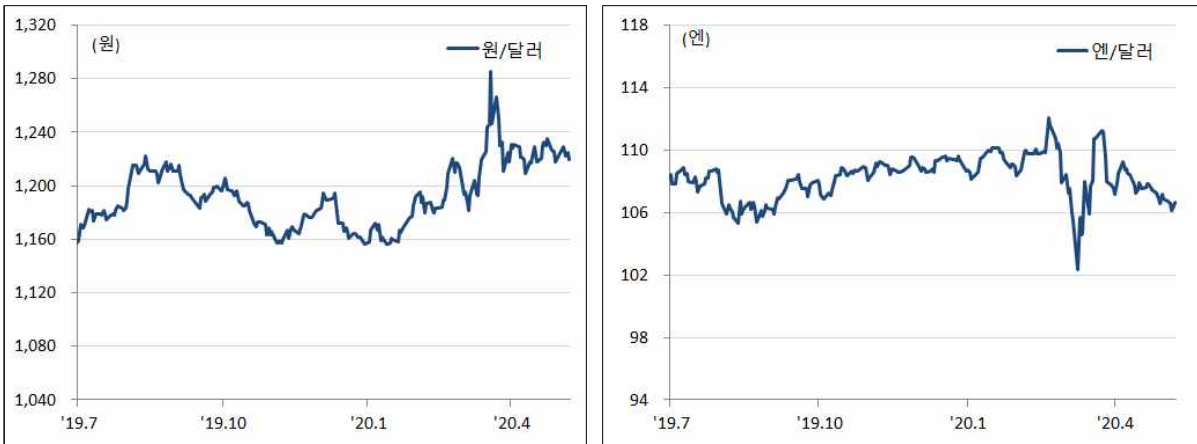
(담당자 : 환율 - 김혜진, 금리·주가 - 정대형)

# 금리 · 환율 · 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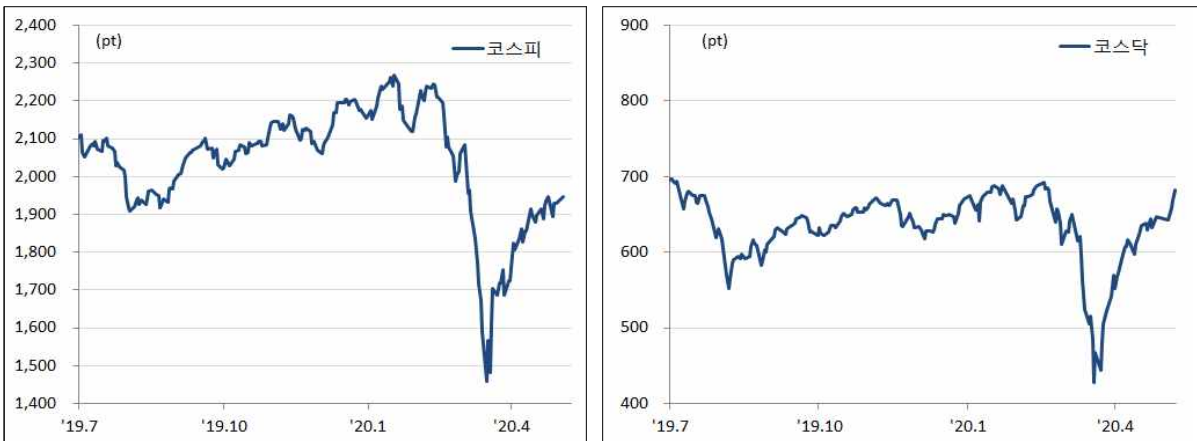
**금리** 국고채3년 0.914% (9.2bp ↓), 신용스프레드 99.6bp (1.2bp ↓)



**환율** 원/달러 1,219.9원 (1.7원 ↑), 엔/달러 106.28엔 (0.62엔 ↓)



**주가** 코스피 1,945.82pt (0.09% ↓), 코스닥지수 682.3pt (5.75% ↑)



\* ( )는 전주대비 상승 ↑, 하락 ↓, 신용스프레드와 엔/달러는 목요일 증가 기준

## 주간 KDB리포트

Weekly KDB Report

제877호

주간 KDB리포트는 인터넷에서 찾아보시거나 이메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rd.kdb.co.kr, kdb.co.kr  
**문의**                787.7826

본 리포트에 게재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당행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본 리포트의 저작권은 한국산업은행에 귀속되며, 원고의 무단 전재, 복제, 배포 등 저작권 전반에 관한 침해 행위를 금합니다.